



扶安林氏金浦宗報

7호
2021년 12월 31일
www.부안임씨밀직공파.com

◎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 발행인 : 임종철 010-2327-2974 ◎ 편집인 : 임종상 010-5343-3441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산재로 42-68

崇祖(송조) 改善(개선) 和平(화평)

생각이 다를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종회가 갈 길은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겨울 추위보다도 매섭습니다. 온 나라, 온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에 우왕좌왕 혼란을 겪고 있고, 생활에 불편이 크고 경제가 집집마다 어둠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종회도 코로나 방역을 지키며 종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회의를 제때 제대로 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10월 중순 종중 원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열고, 그 다음주에 제법 형식을 갖춘 이사회를 열어 종사를 의논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하다보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솔선수범 해주신 집행간사님들과 이사님들, 원로 어르신들, 청년회원, 여성회원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학사공 세일제, 서하공 세일제를 비롯한 대소사를 원만하고도 격조있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하공 시제에는 저 멀리 고흥,여수,별교지역 밀직공파 종인님들이 불원천리 대거 참석하시어 성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서공파 종인들께서도 성심성의로 참석하신 가운데 임성묵 종인께서는 <서하 임춘공 생애 고찰> 편저 저서를 헌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각에 모신 조상님들 위패를 나무로 새로이 제작하여 봉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각에 유존각(維尊閣) 현판과 대문에 임씨가묘(林氏家廟) 현판을 새로 제작하여 게양하였습니다.

또한 세일제 제사를 모시면서 홀기, 축문, 분정기를 바로잡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20여 년만에 선영의 묘역을 정비하고 조상님들의 묘소를 사초(莎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방치되다시피 했던 약600년전 비석을 제자리에 정립하기도 했습니다.

추모동산과 유존각을 잇는 산책로와 계단을 새로 만들어 우회하지 않고도 직행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각 주변에 정원수를 새로 식재하고 나무벤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납골당(봉안당)의 설비들을 수리, 보정하였으며 제단을 추가하고 정자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납골당, 유존각, 사택의 열키고 설킨 전기선들을 솔선수범 정비, 개조해주신 해사공 직계손 임종철 감사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종중 소유 전답을 개토공사로 정비하여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 종중 대소사에 보탬이 될 소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일제 종사를 맡아 하던 묘지기 담당자를 해임하고 사택을 접수하여 개축공사를 마쳤습니다. 실로 신축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할 만큼 큰 공사를 운영간사 주도하에 맡김하게 개조, 수리,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가수도로 불편을 감내해야 했는데, 이제 상수도를 제대로 인입하여 반듯한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사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위원장과 인근 종인들의 협조로 시정, 맑은물관리사업소와의 협력도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보수를 마친 사택의 새로 만든 회의공간은 앞으로 우리 종회 대소 회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거공간은 임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중동(靜中動)으로 크고작은 종사를 진행해온 종인 여러분의 수고에 거듭 깊이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몇 가지를 짚어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제례와 예물, 종중 역사를 기록, 보존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전통을 보존하고 어디까지 당대에 맞게 개비할 것인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폭넓은 탐구와 토론, 협의를 통해 결정해갈 일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의(大義)와 사심(私心) 사이에서 어디까지 관용하고 어디까지 문책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 사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조상을 모시는 종중에서의 문제이기에 그만큼 곤란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참에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무엇보다도 임원이든 일반 종인이든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사비(是非)를 가릴 수 있을 터입니다.

이제 우리 종중은 어려움 속에서도正道(正道)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중의 발전을 희망하는 종인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입니다. 머지않은 몇 년안에 자부심을 갖고 그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종사를 소개하게 되기를 구상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회장으로서는 거듭 당부드리고 강조드립니다. 생각이 다소 다를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종중이 갈길은 송조(崇祖)—개선(改善)—화평(和平)의 길, 하나입니다.

그 길에 한 가족, 큰 가족의 한마음으로 뜻과 힘을 합쳐주시길 소망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회장 임종철

서하 유적지 탐방 (청도 운문사와 청동호)

임춘(林椿)의 고려 본『서하집(西河集)』은 고려말 혼란기에 인멸되어 전해지지 않고, 동문선 등 일부 책에서 편 편이 전해지고 있었다. 1656년에 청도 운문사(雲門寺)의 승려 인담(印淡)이 꿈에 한 도사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무너진 약야계 동탑(銅塔) 속의 청동호(보물202호) 안에서 북장품처럼 보관되어 있던 고려 본『서하집(西河集)』 찾아 냈다고 한다.

그런데 원래의 소장자는 고려 담인(淡印) 스님이었고, 300여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발견한 자는 조선의 인담(印淡) 스님이 었다는 점이 기이하다 하여 후대 호사자(好事者)들과 역대 시화집(詩話集)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경상북도 청도의 운문사에서 발견한 고려본 서하집에 신유한[1681~?]이 쓴 발문과 임춘의 14대손 임재무(林再茂)가 쓴 「중각서하집발(重刻西河集跋)」 중간본에 그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편집인 탐방)



2021년 종회 업무 및 활동 사항

우리 종회는 전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거리두기 등으로 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2020년 결산 총회와 2차례의 이사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서하공 묘역과 개곡리선영 세일제 그리고 자문회의 세미나점 이사회를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시급한 현안 문제를 중단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종회 근조 조기〉

부안임씨 밀직공파 종인 애사 시 연락주시면 조기를 보내드립니다.
재무 간사 임한기 010-6237-2978



〈우리 종회의 새로운 로고〉

부안임씨 밀직공파 학사공 세거지 김포를 상징하고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전각 형태 입니다.



2021 신년 선영 참배



세종시 전서공 임난수 장군 제례 참관



유존각 앞 이사회



간사 회의

〈2021년 자문회의〉

10월 23일 종회 원로 및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종회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유존각 현판 제작과 유존각에 밤나무 위패 봉안건, 사택보수 후 임대 계획과 개곡리 종회 사무소 준비건, 세일제 행사(홀기, 축문, 제물)에 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2021년 제4차 이사회〉

거리두기와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김포 렉스트 호텔 세미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 결과보고(유존각 전지작업, 식목, 선영 사초, 남골당 제단 및 정자설치, 밭을 농지로 전환, 묘역 관리인 계약해지)와 유존각에 밤나무 위패 봉안건, 현판 제작건, 사택 보수, 사택옆 종회사무실 준비건, 세일제 준비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존각 주변 환경 개선

유존각 내부 보도블럭 침하 복구하고, 주변 조경수 전지작업과 이팝나무와 백합나무를 식수했습니다. 유존각 앞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추모공원으로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쉼터(테이블 의자)를 배치하였습니다.



學士公(학사공) 외 先塋(선영) 莎草(사초)

개곡리 선영 조성 후 20여년이 지나면서 관리가 부실하여, 봉분이 심하게 무너지고 비석등 석물이 기울고 훼손되어 자문회의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관리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묘역을 사초하였습니다. 봉분은 높이를 낮추었으며 석물은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후 수평을 맞춰 올렸으며, 묘역 10M 이내의 나무를 벌목하여 묘지에 그늘을 줄였습니다. 학사공 묘소 밖에 있던 600여년 된 비석을 묘소 옆에 복원하여 세웠습니다.



부안임씨12대 학사공 휘 계정 묘소



부안임씨13대 휘 철손 묘소



부안임씨14대 휘 원년 묘소



부안임씨15대 휘 사언 묘소



부안임씨16대 휘 백춘 묘소



부안임씨16대 휘 조춘 묘소



부안임씨17대 휘 경남 묘소



부안임씨17대 휘 응남 묘소



부안임씨17대 휘 두남 묘소



부안임씨18대 휘 형원 묘소



부안임씨 학사공외 월곶면 선영



사초 후 산신제



사초 후 위안제

납골당, 추모공원 환경 개선공사 및 대청소

추모공원과 납골당은 부안임씨 김포종회에서 우리 종인들께 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상을 당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에 부담을 줄여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중 가격에 10%정도인 납골당 사용료 기당 60만원, 추모공원 묘소 사용료 400만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종회에서는 납골당 앞의 제단을 2개소로 증설하고 제실을 만들었습니다. 연 2회 별초와 관 리, 납골당 내부 대청소, 전등교체, 환풍시설 4곳 타이머 설치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화장실과 수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제례 준비와 쉼터 로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분양 문의 [재무 간사 임한기 010-6237-2978]



先祖 時祭 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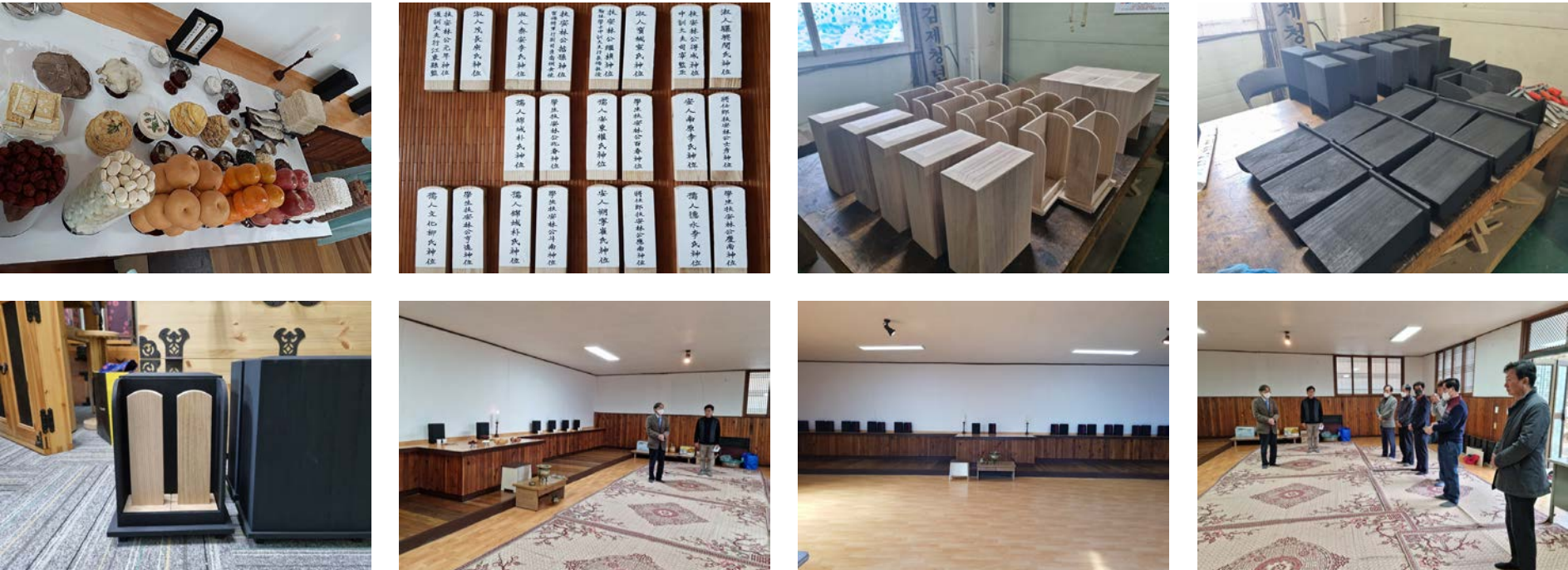
忠節公	林八及	(음)	3월 3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判事公	澤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文憲公	季美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密直公	大光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西河公	椿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典書公	蘭秀	(음)	9월 9일	충남 연기군 동면 불파미
	敬世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學士公	繼禎	(음)	10월1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독골
恭惠公	淑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位牌 奉安 (위패 봉안)

본회 자문회의와 이사회에서는 기존의 화강석 위패를 격식과 예법에 따라 밤나무 위패로 새로 봉안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패는 종이로 만드는 신주인 紙榜(지방)과 달리 나무로 만드는데, 전통과 사례편람에 따라 단단한 밤나무로 만듭니다. 위패는 주신과 받침대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주신은 높이는 약25cm, 너비 6cm, 두께 2.5cm 정도의 크기입니다.

위패 글씨는 한국서도예술협회장인 연민 배경석님께 贊(찬)받았으며, 위패 제작은 수 작업으로 전주 금어당목공방 김선기 작가가 판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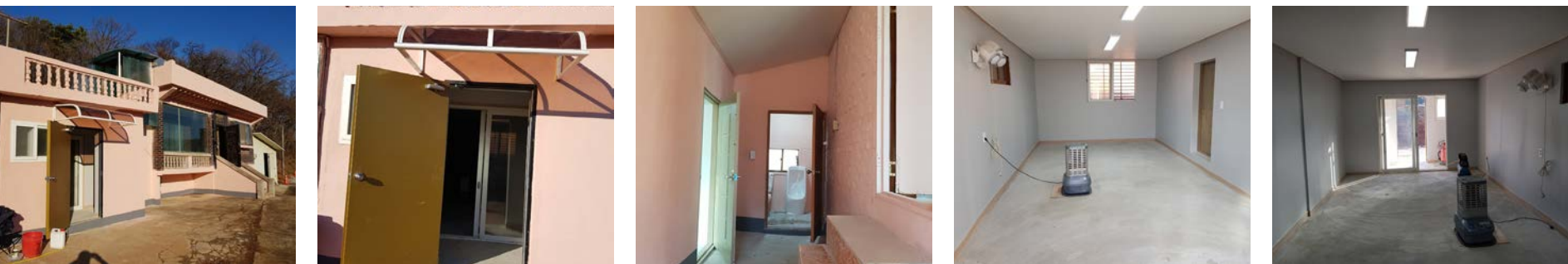
개곡리 선영 제실 현판

개곡리 제실에 정문 현판 임씨가묘[林氏家廟]와 제실 현판 유존각[唯尊閣]을 제막하였습니다. 글씨는 한국서도예술협회장인 연민 배경석님의 서예로 贊(찬)받아 위패도 같이 작성하였고, 현판은 전주 금어당 목공방 김선기 작가가 판각하였습니다.



개곡리 종회 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산재로 42-68(개곡리 626번지)

우리 종회에서는 마송 종회 건물(지하 1층) 사무실이 누수와 습기로 인하여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없어 개곡리 사택 옆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선영 제실 유존각에 인접해있어 세일제 행사에 준비실도 겸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종회 이사회등 각종 회의 장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1년 절의공(서하공)외 선조 세일제 [음력 10월 15일]

우리 종회의 최대 행사인 서하공 묘소 세일제와 개곡리 선영 세일제는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체온검사, 방역등 예방조치를 취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여성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참석하신 후손들께 명찰을 달아드리며 서로 쉽게 알아 볼 수 있게하며 정성과 예법을 다하여 제사를 모셨습니다.

서하공 세일제는 전서공파(현방 수석부회장의 종인) 고흥밀직공파(영득 회장님의 종인)와 김포종인들이, 세종시, 청주, 증평, 고흥등지에서 참여했습니다. 전서공파 성목 후손께서 編著한 "西河 林椿公 生涯考察"을 제단에 올리고 세종시에서 岐湖書社 복원공사 작공을 告由했습니다. 서하공 묘소를 찾으신 하운공 휘 재호 조고의 현손 병운님과, 해사공 휘 승익 조고의 현손 종철님께서 참여해 독축을 했고, 김포종회 종철 회장께서 참여하신 종인들께 감사 인사와 선물을 증정하시고, 부안임씨 각파의 제례 예법이 많이 통일된 것에 대한 노고와 원만한 행사 진행에 대한 협조에 감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곡리 선영 제실(유존각) 세일제

유존각에서 (음력)2021년 10월 10일에 세일제를 모셨습니다. 제례 예법에 맞게 홀기와 독축을 정비하고 새로이 모신 위패앞에 정성으로 제물을 준비하여(세일제 분방기를 게시) 제사를 올렸습니다.

또한 사당 정문에 林氏家廟(임씨가묘)현판과 제실 정문에 唯尊閣(유존각)현판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溫故知新-조상 묘 이야기〉

조상이 편해야 후손도 편안하지요!!

- 조상의 묘를 13번이나 이장(移葬)한 까닭은? -



임종광

김포중회 집행위원장

지난 8월,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첨예한 오랜 감정도 있고, 암울했던 시절의 일제 강점 36년을 기억하며 김진명의 소설“몽유도원도”와 “하늘 이어 땅이어” 두 권을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우수한 문화재를 일본이 약탈하려한 광개토대왕비에 얹힌 비밀을 중심으로 서사화한 몽유도원도를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기가 피어오르는 곳 마다 쇠말뚝을 박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민족정기를 끊으려는 음모에 대한 하늘이여 땅이여를 읽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내내 마음이 참 심란했습니다. 두 권의 책은 공통되게 일제에 의해 간악하게 자행된 만행이 애국심을 고취시키기도 했지만 더 큰 분노와 속상함은 그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의 조상님들의 애환을 생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치권을 앗아간 무리들이 자행한 수많은 일들은 나라 잃은 서러움과 역사가 단절된 현실에서 비통함과 울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역사는 피곤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제의 침략에 이은 강점기가 아닐까 합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를 침략 후 모든 분야에서 침략자로서 갖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많은 만행 중에서도 정신문화와 관련한 풍수지리에 대한 잔혹한 행태에 있어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조선의 풍수를 저술한 일본의 역사종교학자인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의 명 풍수가 중 한사람인 고종때 참봉을 지낸 전기응(全基應)을 앞세워 풍수에 대한 침략을 노골적으로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대동맥인 백두대간의 좁은 고개마루부터 산속 도로인 임로 개설을 방자하여 혈맥을 마구 마구 절단하고 이 조차도 모자라 철심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혈기가 흐르는 산 정상은 물론 생기가 흐르는 토질(흙)에도 무자비하게 기(氣)를 차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매장문화 풍습조차도 금지시키고 대신 공동묘지를 강요하고 특히 묘지 주변에 번식력이 강해 나무뿌리가 시신을 휘어 감을 수 있는 수종인 아카시아 나무를 집중 식재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 때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백두대간에 꽃혀있는 쇠말뚝 118개를 국가 정책으로 뽑아내는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은 불교와 유교로 국교를 달리했지만, 두 종교는 풍수를 배척하지 않고 계승하여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불교풍수와 유교풍수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유교풍수 중에는 ‘피안치안설(彼安此安說)’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조상과 자손은 같은 기를 공유하는데 “조상이 편안하면 후손도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상이 불편하면 어찌 후손이 편안하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후손들은 마음에 들 때까지 이장을 거듭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말엽 명성황후도 친정아버지를 4번 이장하여 4천5장(4遷5葬)의 기록이 있고, 사대부나 명문가가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더 나은 길지를 찾아 조상 묘를 한 두 번 이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교적 관념과 풍수설이 합해진 자연스러운 생사관이라 봐야 하겠습니다. 조선의 명풍수가인 남사고(1509~1571)의 유명한 일화 ‘9천10장(9遷10葬)도 이와같은 믿음의 결과에서 시작했다 합니다

단신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경상남도 구례,광양,하동이 만나는 화개장터 맞은

편 하천산 9부 능선에 있는 묘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래전에 인연이 닿은 12천13장(12遷13葬)을 주관한 유학자이며 정치가인 김종인(金鐘仁/20대국회의원, 김제시부안군)선생의 증조부모 묘입니다. 김종인 선생은 선친(유학자 金洙演/1926~2019)에게서 한학을 배워 유학에 능하고 풍수지리에도 매우 밝은 분인데 국회의원시절 당시, 국회도서관 최다 이용자로 상을 받았을 만큼 학구적인 분입니다. 이분은 조상의 체백(죽은 시신의 혼백)이 편안함을 으뜸으로 해야 조상(彼)과 후손(此)이 영생하는 피차생생(彼此生生)의 천리(天理)가 완성된다고 하는 풍수론을 제시한 분으로 대어섯살 부터 유학 경전은 물론 직접 사주, 풍수를 공부하고 한의학 박사를 취득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김종인선생이 9부 능선 높은 산으로 12번째 이장, 13번째로 조상을 모신 까닭은 평지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땅의 깨짐(破地)을 염려해서 입니다. ‘뿌리없는 나무’없이 조상이 있기에 내가 있고 후손이 있는 것으로 자자손손 조상을 잘 모시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고조부모와 조부모의 묘도 이장을 거듭, 거듭한 끝에 개발을 피할수 있는 현재의 자리로 최종적으로 이장하였다고 합니다. 길(吉)을 찾아 13번을 거듭한 이장이 일부 미신이라 치부하는 풍수에 빠진 어리석음일까요? 저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사는 모습은 존경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는 유교적 관념으로 채워져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종인 선생의 생사관을 의미있게 받아 들여 조상을 기리며 숭배하는 그 마음에 대해 우리는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함을 직접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금번 1박2일 하동 여름여행은 한 층 깊어진 조상에 대한 숭배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크나큰 소득을 얻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대는 세대를 낳고 세대는 시대를 만듭니다.

현실을 보면 기성세대라 일컫는 연령층의 세대와 그 후손들인 젊은 세대가 공존하며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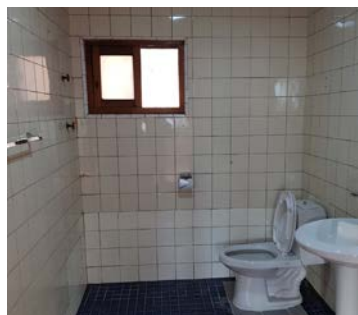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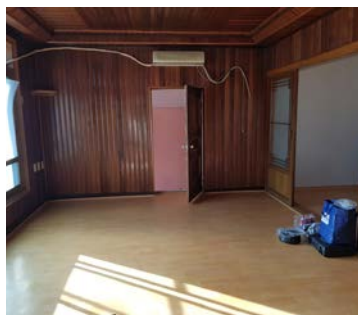
자라나는 어린이는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의 가치의식을 심어주고 조상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는 일은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세들은 일반적으로 조상님들의 애환과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여 안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조상님들은 긴 세월동안 이어온 나라 잃은 서러움 속에서 그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오늘날 이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온 기틀의 과정을 우리 후손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우연히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냥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의 조상님들이 가난과 배고픔과 노력이 가져다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위에서 흐르는 순리가 조상님으로부터 오늘의 젊은 후세가 이어져 오는 과정과 동일시 되어야함을 알게 하여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들의 정신과 송고한 인고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하며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유교풍수의 근간으로 조상님들의 묘 단장과 경건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흘러간 구태나 미신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아니되며 오늘의 우리세대가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전통과 풍습을 필히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마음으로 발전 계승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개곡리 사택 리모델링, 임대 예정

개곡리 묘역 관리인에게 제공하였던 사택을 리모델링하였고, 임대 할 예정입니다. 관리인이 20여년을 사용하여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고, 상수도 인입과 전기, 보일러점검등 주거에 불편없게 수리하였습니다. 집 뒤편 밭 150평을 같이 저렴하게(방 2,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창고, 보증금300만원에 월30만원) 임대합니다. 많은 홍보 바랍니다. [임대문의 : 임한기 010-6237-2978]



西河 林椿 文學碑 (杖劍行 해석)



午年夏 避地江南 頗有流離之歎 因賦長短歌 命之曰 杖劍行
갑오년(1174년) 여름에 강남으로 피신하며 유랑의 탄식이 있어 長短歌를 짓고서 ‘杖劍行’이라 하였다.

杖劍行 장검행

원본 : 西河 林椿 서하 임춘
번역 : 경희대학교 국어문학과교수 문학박사 김진영
해석 : 부안임씨 밀직공파(김포) 23세손 종상 작성

(원본) 飢餓六尺身 一落乾坤內 桑弧蓬矢射四方 男兒有膽如斗大 況有狂風吹 波濤搖四海
항장육척신 일락건곤내 상호봉시사사방 남아유담여두대 황유광풍취 파도요사해
(번역) 꾀꾀한 여섯 자의 몸으로 한번 천지 사이에 태어나. 뽕나무 활에 쏘 화살로 사방을 쏘았듯 남아의 담력 큰 말과 같았는데. 어쩌다 광풍이 불어와 파도가 사해를 뒤흔드니,
(해석) 고려개국 이래 대대로 고위 관료 출신 집안으로, 부친 3형제가 나란히 옥당에 올랐다. 백부 휘 종비와 휘 민비에게 학문을 배웠다. 휘 민비는 재상으로 있을때 세번이나 과거시험을 주관했으며 증서시랑 등 증서문학평장사를 지내셨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지나고 있는 명문가문의 후손으로 귀하게 태어나 욕, 칠세 때 부터 백가어를 편독하는 등 문명을 날리며 천재의 이름을 얻었다. 건장한 체격과 학문적 명성으로 과거를 준비하여, 이제 막 세상을 나설 때 세상이 뒤집혔다. 정중부의 무신난이 일어나 그 파장은 천지를 개벽하듯 온 세상을 뒤 흔들어 놓았다.

(원본) 蛟龍魚鼈皆未安 出穴動蕩失所在 時無豪傑士 誰赴功名會 嗟哉我若匏瓜繫
교룡어별개미안 출혈동탕실소재 시무호걸사 수부공명회 차재아약포파계
揮斥難窮八極外
휘척난궁팔극외

(번역) 교룡과 어별이 모두 두려워 굴 나와 헤매다가 있을 곳을 잃었네. 때마침 호걸스런 선비도 없으니 누가 공명의 모임에 달려가리. 아, 나는 매달린 바가지 같이 어렵고 궁한 세상 끝에 내쳐졌네.
(해석)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다 궁궐을 나와 헤매다가 갈 곳을 잃고, 있을 곳도 잃었네. 이런 상황에서 정중부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 힘과 강력한 통솔력이 있는 인물이 나서지 않으니, 어느 누가 명분의 깃발 아래 모일 수 있겠는가? 나는 붓짐에 매달린 바가지 같이 모든 걸 빼앗기고 세상 끝의 나락으로 떨어졌네.

(원본) 長安塵土中 高枕臥五載 恒飢已變顏色 牢落枯腸千卷書 及斛亦足溫 滿腹不願餘
장안진토중 고침와오재 항기이변안색리 뇌락고장천권서 급한억족온 만복불원여
可笑文章不直錢 萬乘何曾讀子虛
가소문장불치전 만승하증독자허

(번역) 서울의 흙먼지 속에서 베개 높이 베고 지낸 5년 세월. 늘 굶주려 낮빛은 검게 변하고 마른 창자엔 천 권의 책만 쓸쓸하네 무릎이라도 들어 따뜻하면 되고 배부르면 더 바랄 것 없건마는 가소롭다 문장은 한푼 어치도 못되니 천자가 언제 자허부를 읽었던가.

(해석) 무인들의 폭정과 공포 정치의 질주 속에, 숨어서도 살기위한 방법을 찾아 항상 긴장하고 잠 못 이루며 베개에 기대어 보낸 5년의 세월. 늘 굶주려 마른 물골에 얼굴빛이 검게 변했고 마른 창자엔 그동안 읽고 배운 가득한 책들만 싸늘하구나. 추위 속에 무릎이라도 따뜻하게 덮고 배불리 먹어보면 더 바랄 것 없으련만, 우습구나 수많은 학문이 한푼어치도 못 되는데... 임금은 미리 제후들이 사냥하며 부르던 사치와 방종의 자허부를 읽어 대비하지 못 했을까?

(원본) 紛紛世上鄙夫輩 砥特猶得三十車 我欲唾面去 浩然賦歸鰥 休向閭閻老一身
분분세상비부배 지치유득삼십거 아욕타면거 호연부귀여 휴향여염노일신
如籠中鳥池中魚 盡畫萬里行 蕭蕭一疋驢
여룡중조지중어 진실만리행 소소일필려

(번역) 어지러운 세상 비루한 무리들 치질 핥고 30대의 수레를 얻었다네. 나는 그 낮찍에 침 뱉어 주고 호연히 돌아가는 시를 지으리 여염에 밭 끊은 늙은 이 몸 조롱의 새요, 못의 고기같아 집 버리고 만리 길 나서니 쓸쓸히 한필 나귀뿐이네.

(해석) 어지러운 세상의 비루한 무리들. [진시황의 치질을 할 타 주고 수레를 얻은 간사한 무리]와 같은. 무식하고 비겁한 간신배들의 얼굴에 침 뱉고 홀연히 떠나가는 시(詩)를 지으리라. 민가에도 밭 끊은 지 오랜 내 신세, 새장에 갇힌 새요, 웅덩이의 물고기로다. 빼앗긴 집 버리고 만리길 정처없이 나서는네, 가진 것은 한 마리 나귀뿐이라.

(원본) 家山急赴秋風至 蓴羹一杯方有味 遲遲回首望中原 可憐久作風波地 黃鷄夜鳴非惡聲
가산급부추풍지 순갱일배방유미 지지회수망중원 가련구작풍파지 황계야명비악성
起舞自有英雄志
기무자유영웅지

(번역) 고향에 달려가면 가을바람 불어와 순채국 한 잔 술이 참 맛날 텐데 천천히 머리 돌려 중원을 바라보니 가련타, 오래도록 풍파 이는 땅이여. 닭이 밤에 운다고 나쁜 것만 아니라네 본래 지닌 영웅의 뜻 펼치면 되지.

(해석) [옛날 진시황이 죽은 후 전국시대에 멸망했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킬 적에, 진나라의 장수 장한이 전쟁 중에 그리워 했던 고향의 순채국과 한 잔 술이] 내게도 그립구나. 천천히 고개 돌려 궁궐 쪽을 바라보니 가련 하구나 , 아직까지 풍파 이는 땅이여. 때가 오기를 너무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한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라. 원래 가진 영웅의 뜻을 펼치면 되지.

(원본) 誰言婦女不勝衣 長策雄謀人莫知 作鎗誤擊秦 脫身遊下邳 從容跪授圯橋履
수언부녀불승의 장책웅모인막지 자추오격진 탈신유하비 중용계수이교리
會須不後老人期
회수불후노인기

(번역) 누가 말했나 여자같이 연약하다고 높고 큰 계책 사람들은 알지 못했네. 첩퇴로 진 왕을 잡 못 처서 몸 피해 하비를 떠돌다가 조용히 무릎 꿇고 마침내 노인과 약속에도 늦지 않았네.
(해석) 장량(장자방)이 여자같이 연약하다고 누가 말했나, 그의 높고 큰 계책을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 했네. 진시황을 시해하려 박랑사에서 자객들을 데리고, 진시황 수레를 잘못쳐서 하비로 숨어 떠돌았네. 비 온 후 다리를 지나던 노인이 신발에 묻은 흙을 떼다가 다리 아래 빠트리자, 몇 번이고 달려가 신발을 주위 공손히 무릎 꿇고 신겨 드렸네. 그리고 노인과의 약속을 지켜 육도삼락을 전수 받았네.

(원본) 笑彼拔山力 捕取等嬰兒 龍顏隆準一相遇 萬戶封侯帝者師 丈夫事業固如是
소피발산력 포취등영아 용안용준일상우 만호봉후제자사 장부사업고여시
何爲乞米還遭嗤
하위걸미환조치

(번역) 우습구나 저 산을 뽐을 힘도 어린애같이 잡힌 바 되었고. 높은 곳대의 용안을 만나서 만호후에 제왕의 스승 되었네. 장부의 사업은 진정 이러해야지 어찌 쌀 구걸하며 비웃음 살 것인가.
(해석) 우습구나! 역발산(力拔山) 기개세(氣蓋世) 힘이 넘쳐 산을 뽐을만하고 기운이 넘쳐 세상을 뒤엎던 초패왕 항우를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계책으로 초나라 군심(軍心)을 뒤 흔들어, 흠어지고 도망치게 하여 어린애 같이 잡았네. 곳대 높은 유방(한고조)을 만나서 만호후의 봉토(封土)를 받고 제왕의 스승이 되었네. 장부의 사업은 이 정도는 해야지 어찌 쌀 구걸이나 하며 비웃음을 살 것인가.

(원본) 一葦江之陽 歸來宿舂糧 雲煙宛若畫 草樹巧如粧 浮家泛宅任平生 胷中自有無何鄉
일위강지양 귀래숙용량 운연완약화 초수교여장 부가범택임평생 흥중자유무하향

(번역) 작은 배 한 척으로 강 북쪽에 돌아와 지내면서 곡식 쥘으니, 구름과 연기는 흡사 그림 같고 풀과 나무는 여여쁘게 단장한 듯. 떠다니는 집 위에 평생을 맡기니 마음엔 절로 무하향이 있네.
(해석) 작은 배 한 척으로 강 북쪽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니 ... 참으로 오랜만에 단순한 생활에 젖어 드네. “해 뜨면 들에 나가 일하고 해 지면 집에 돌아와 쉬네. 우물을 파서 물 마시고 밭을 갈아 배를 채우니, 내 살아가는네 임금의 힘이 있으나 마나 일세.” 堯(요) 임금 때 태평한 생활의 擊壤歌 (격양가) 를 부르는 듯, 잠시 무겁던 마음을 내려 놓으니... 구름과 연기는 흡사 그림 같고 풀과 나무는 나를 위해 단장한 듯 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나 마음은 절로 만족하여 무릉도원의 무하향이 느껴지네.

(원본) 此行不是求爲田 祇恐祖生先着鞭 感懷無言淚如洗 茫茫島外空長天
차행불시구위전 지공조생 선착편 감개무언누여세 망망조의공장천
匣中霜劍寒三尺 壯士有心終報國
갑중상검한삼척 장사유심종보국

(번역) 이 길은 밭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생이 채찍 먼저 잡을까 두렵네. 한탄하며 말없이 눈물 뿌리는데 멀리 새는 날아 빈 하늘 벗어나네. 칼집 속엔 서릿발 싸늘한 석자의 칼, 장사의 지닌 마음 끝내 나라에 보답하리.
(해석) 다시금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해지는 것은 밭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한 장군 밑의 선봉장이었던 유곤이 늘 조적(조생)이 나 보다 먼저 채찍을 잡고 달려나가 공명을 얻을까 근심하듯] 한탄하며 말 없이 눈물 흘리는데... 멀리 새는 날아 빈 하늘 벗어나네. “칼집 속엔 서릿발처럼 날이 선 싸늘한 석자의 칼이 있고, 마음속의 굳은 신념 끝내 출사해서 이 난국을 평정하여 나라에 보답하리라.”